KR 상생뉴스

‘제1회 KR신선데이’ 개최

- 신입직원과 선배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 열려 -

공단은 지난 23일 2012년 신입직원과 선배들이 함께하는 ‘제1회 KR신선(新·先)데이’를 개최하고,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KR신선(新·先)데이’는 신입사원이 조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상하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빠른 업무적응을 도와줌으로써 공단 발전의 일원으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날 행사는 김광재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장, 선임처장들이 신입직원과 함께 팀을 이뤄 족구대회를 통해 구슬땀을 흘리며 선의의 경쟁으로 하나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합 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멘티-멘토를 형성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사무실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 궁금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회사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닌 내가 공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강조하였다.

신입직원 대표인 유광수 사원은 “서로 격의 없이 함께 응원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모습을 보며 선배님들의 개방적인 마인드와 열린 포용력, 후배에게 전달되는 에너지와 열정을 직접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조직문화에서 필요한 신뢰와 상생 그리고 협력의 진면목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여직원 대표인 송다혜 사원은 “선후배들과의 화합의 시간을 통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사장님과 고충을 들어주고 궁금한 점을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는 선배들을 보며 좋은 점을 본받고 부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꾼이 되겠다”며 당찬 의욕을 피력하였다.

한편, 공단은 제1회 KR신선(新·先)데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새로운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지원안전실 정진만 기자〉

대전지역 어르신 ‘장수사진’ 증정

- 공단, 본사에서 직접 전달 -

공단은 지난 17일 본사에서 대전시 노인복지관 어르신 40명의 ‘장수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고, 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는 나눔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지난 6월 27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된 ‘2012년 대전광역시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행사장에서 어르신들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사내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촬영한 장수사진을 이날 본사 22층 KR 플라자에서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광재 이사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08년부터 매년 대전 지역 어르신들께 장수사진을 증정해 오고 있다.

공단, 상반기에 임대수익 6400여만원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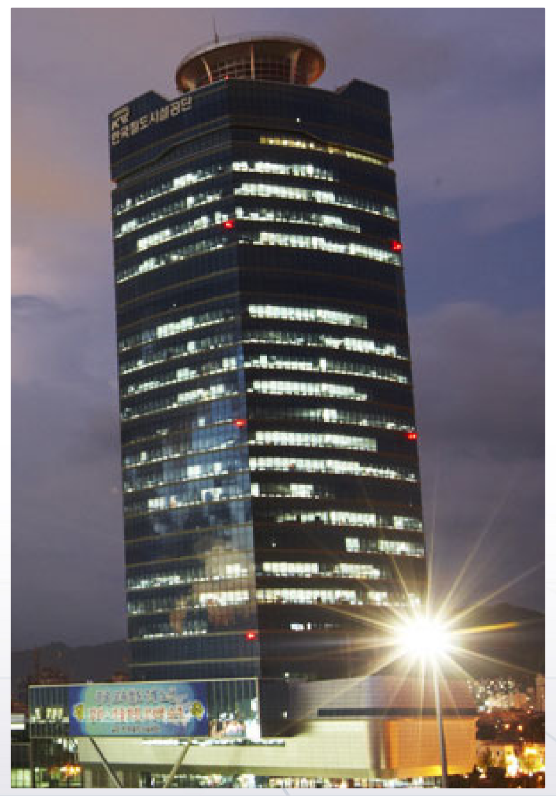
- 재무구조 개선과 대외 인지도 향상의 두 마리 토끼 잡아 -

공단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무실, 회의실 등의 본사 사옥 시설에 대한 외부 개방을 확대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에 약 6400여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공단은 회의실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500여개 기관에 이용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시설 임대 노력을 벌인 결과, 금년 상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국 각지(수도권 34개소, 충청권 14개소, 경상권 1개소, 전라권 1개소)에서 52개 기관, 연 4118명이 회의실 등을 이용하면서 공단의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 신축되어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철도공단 본사 사옥은 대전역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좋고, 회의실 임대료 또한 유사기관 보다 저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철수 경영지원처장은 “본사 사옥 시설에 대한 개방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건설 설계심의 강화

- 비리 · 부정업체 추가감점 등 입찰비리행위 근절 도모 -

공단은 철도건설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의 비리 · 부정행위에 대해 추가 감점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 발주기관과 감점을 공동 적용토록 하는 등 입찰비리행위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심의위원의 임기중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심의대상업체와의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청렴성을 강화하며, 시공단계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변경할 경우 현장설계변경심의를 시행하고, 유사 신기술 등과의 비교 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밖에 지자체 요구사항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를 시행토록 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공단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유사 기능을 가진 지침을 통 · 폐합(3종 ⇒ 1종)하여 내규 간소화를 꾀하는 한편, 최근 일괄입찰공사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 신기술 적용방법 등 내 · 외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철도건설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건설본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를 통해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기준

내 용	감 점	비 고
심의위원 사전접촉	당해 설계심의에서 1점 감점	비리 또는 부정 유발행위 감점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여 전 기관 공통 적용
정해진 회의와 별도로 심의위원 대상자에게 설계내용 설명	적발일로부터 1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2점 감점	
낙찰 후 1년 이내에 심의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등 의뢰	적발일로부터 1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2점 감점	
심의와 관련된 비리 또는 부정행위	2년간 모든 설계심의에서 10점 감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호남고속철도 현장 방문

-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추진현황 보고 및 오송고가 현장견학 -

충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16일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첨단 건설공법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주요 공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후 질의 · 응답 시간에는 호남고속철도 개통효과, 고속철도 건설 재원조달 현황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특히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공단부채 문제, 철도서비스 향상 기대 등 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지난 4월 거치 완료한 오송고가 경부고속선 횡단부 강합성교 등 교량 상부 시공현장을 둘러보고 무더위에 땀흘려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충청본부 김선중 기자〉